

전시학습 확인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양상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차이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나 국민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뒤따르지 못함.
-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함.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 방안

① 인식과 태도 개선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각 변화
-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 활용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 극복
- 관용의 자세 함양

② 차별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차별 금지법 제정
- 장애인 의무 고용제 시행(적극적 우대조치) 등 구체적 · 실질적 차별 철폐 방안 마련 →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성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

차별적 사회화 과정

성 불평등의 의미와 양상

1. 의미: 남녀 간의 차이를 이유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 권력, 위신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
2. 양상
 - 대체로 여성이 불평등과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함.
 -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법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 양상

가정	가사 노동, 자녀 양육이 불공평하게 분담됨.
직장	채용, 업무 분담, 승진, 임금에서 차별받음.
공적 영역	예) 고위 공직자나 지역구 의원의 성비 불균형



성 불평등의 양상

※ 맞벌이 가구 기준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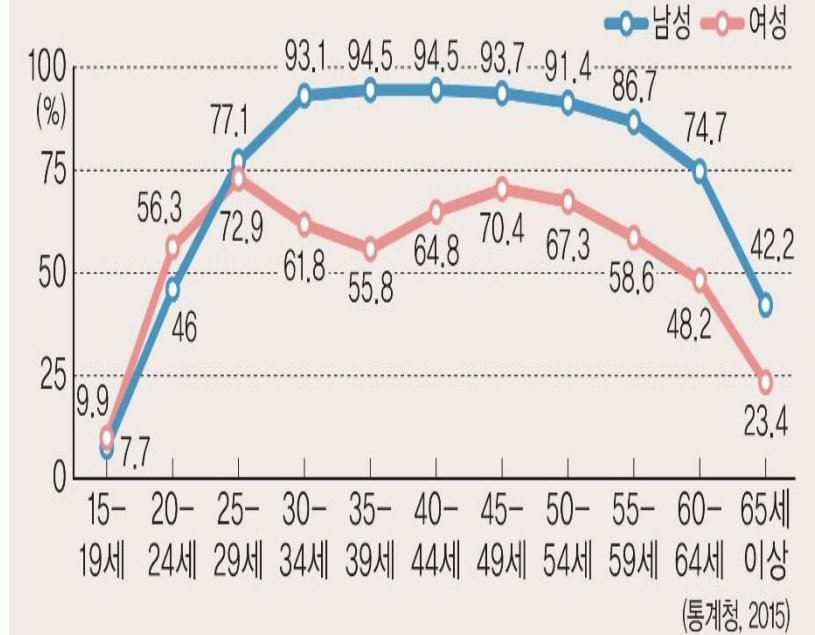


가사 노동 시간

※ 남성 노동자 임금 100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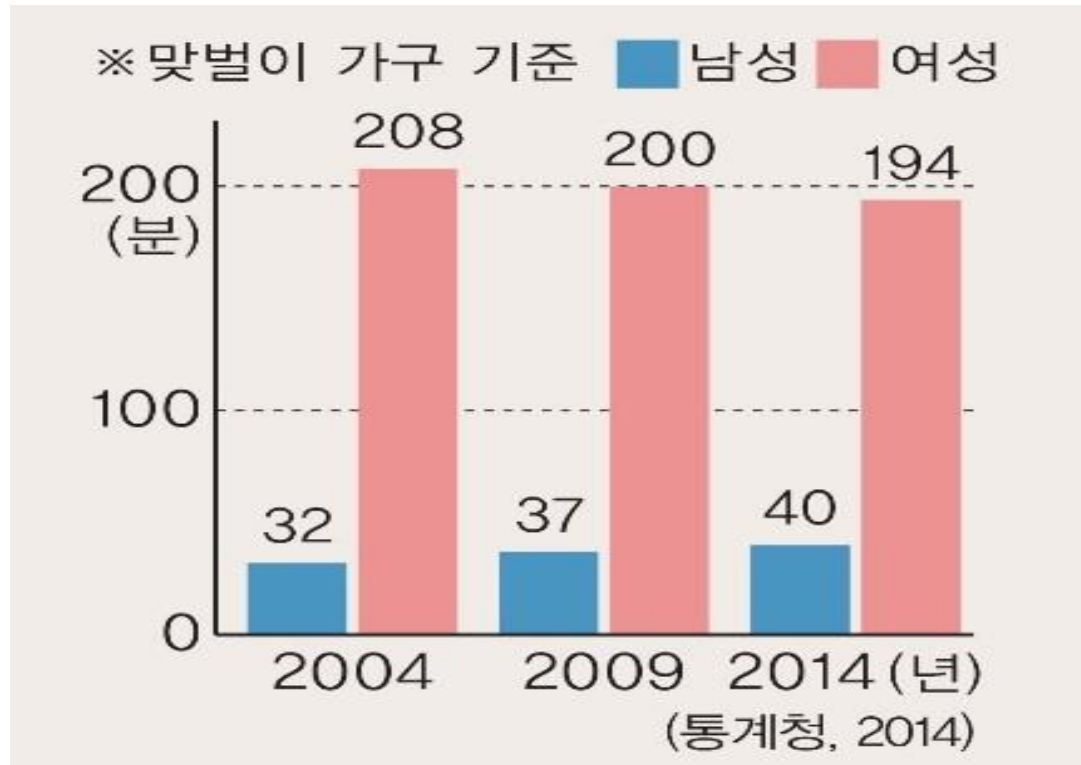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녀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

성 불평등 양상

가사 노동 시간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에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과 비교할 때 거의 5배에 가깝다.

성 불평등 양상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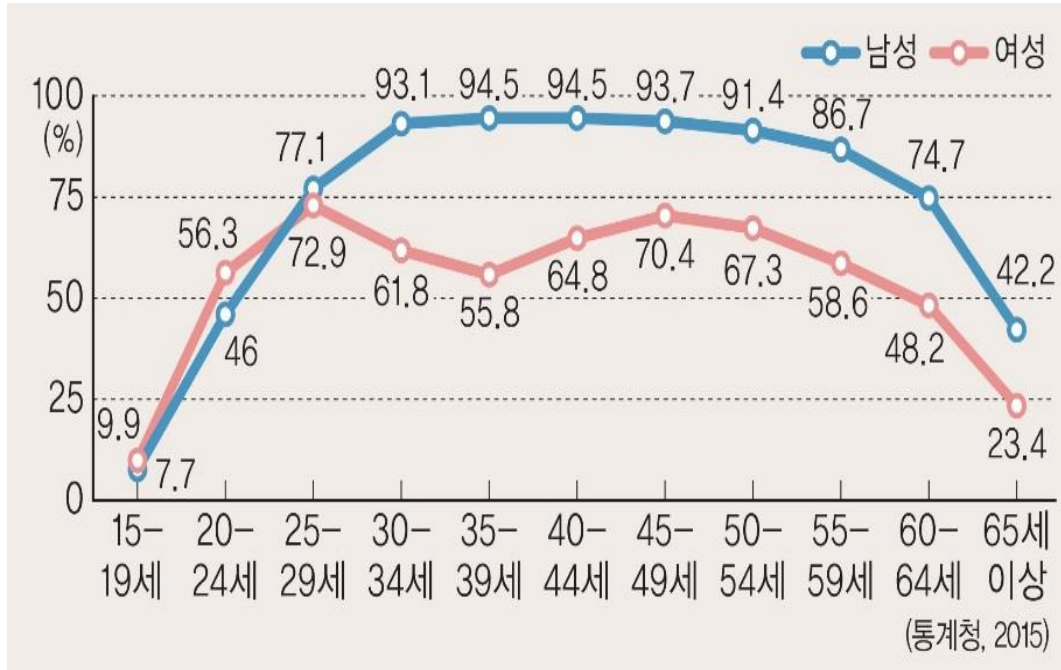
※남성 노동자 임금 100을 기준으로 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이 30-4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남녀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



남성과 달리 여성은 30~40대에 경제 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임신 · 출산 · 육아가 여성의 경제 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1.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관점

원인	가부장제가 남성은 직장 노동, 여성은 가사 노동이라는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 차별 → 직장 구조 안에서도 업무 분담이나 승진 기회에서 여성 차별의 배경이 됨.
해결방안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법률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2. 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주된 원인으로 보는 관점

원인

-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기르는 부모의 양육 태도, 전통적 성 역할과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학교 교육, 성 불평등 의식을 양산하는 대중 매체 등이 성 불평등을 심화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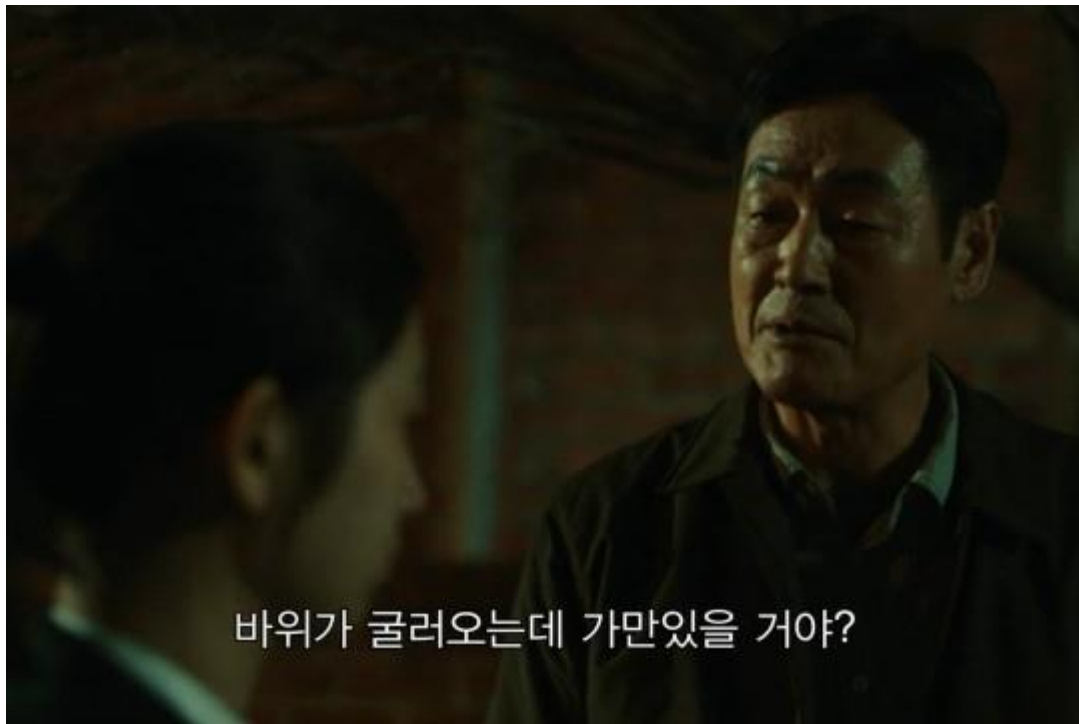
해결 방안

- 학교 교육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함.

성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1. 성 불평등 현상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부장제)**와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차별적 사회화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2.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함.

82년생 김지영 속에 나타난 성불평등 사례



"치마가 너무 짧잖아. 행실
바르게 하고 다녀. 바위가
굴러오면 알아서 피해야지"
라고 한다.

김지영은 억울하지만 참는
다.

82년생 김지영 속에 나타난 성불평등 사례

이지 말고, 전도 시장에서 조금만 사고, 송편도 그냥 떡집에서 사. 차례도 안 지내는 집에서 뭐하러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엄마도 다 늙어 고생이고, 지영이도 고생이고.”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쳤다.

“자기 가족 먹이려고 음식 하는 게 뭐가 고생이야? 명절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고, 먹고, 그러는 재미지.”

그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김지영 씨에게 물었다.

“애, 너 힘들었니?”

“자기 가족 먹이려고 음식 하는 게 뭐가 고생이야? 명절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고, 먹고, 그러는 재미지.”

그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김지영 씨에게 물었다.

“애, 너 힘들었니?”

82년생 김지영 속에 나타난 성불평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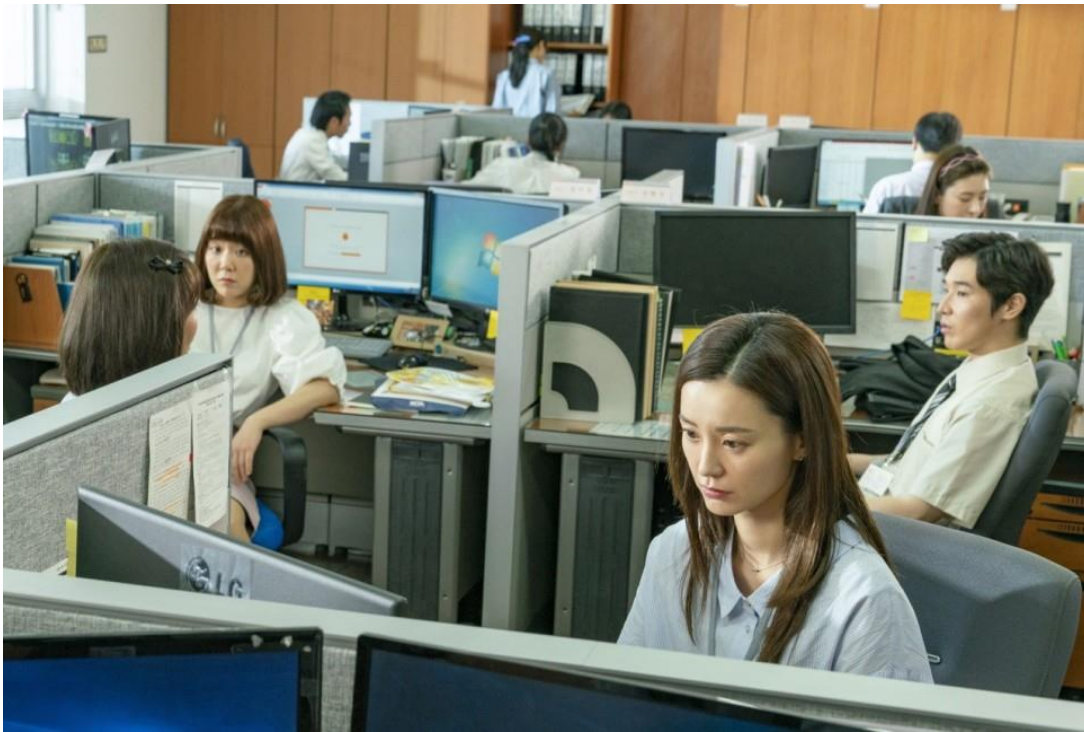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남매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그 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 주셔야죠"

82년생 김지영 속에 나타난 성불평등 사례



"그 놈의 돕는다 소리 그만 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 애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은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82년생 김지영 속에 나타난 성불평등 사례



지영이 “전 왜 기획 팀에 안 데려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김 팀장은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팀을 만들길 원하는데, 뭐.. 아무래도 여사원들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좀 힘들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당한 82년생 김지영의 엄마



김지영의 아버지가 지영이 보고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할 때,
숟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치신 어머니.
"당신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어?
지영아, 너 얌전히 있지 마!
나대! 막 나대! 알았지?"

상담 전문가의 역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지영이 카페에서 겪은 일을 가
만히 듣고난 후 정신과 의사는
묻는다.

“그래서 그 때 지영씨의 마음
이 어땠어요?”

친절한 남편 정대현



네가 좀 아파 지금
지영아,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대현)

영화 82년생 김지영 중

당당해진 82년생 김지영



"저를 아세요?

제가 왜 맘충이에요?

저도 그쪽 한 번 보고 평가해 볼까요? 그쪽 어떤 사람인지?

왜 다른 사람 상처 주려고 애쓰는 건데요.?!"